

남산 공원의 식물상과 그 분포 특성

길봉섭 · 김영식¹ · 김창환² · 전익식³ · 윤경원⁴ · 유현경 · 김병삼 · 김현철

¹원광보건전문대학, ²익산대학, ³한국식물연구회, ⁴순천대학교

남산공원내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의 특성은 도입종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.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을 무분별하게 식재함에 따라 그 수의 급증은 토착종의 생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. 공원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인가에 식재한 수목으로부터 종자가 산포된 경우도 있고 특히 1970년대 말 귀화한 서양등골나물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다.

귀화식물의 조사기록으로 보면 1980년 보다 현재는 2배 이상증가 했다고 하며, 본 조사결과 귀화율은 공원의 남쪽도로, 장충단 공원길, 공원 내 등산로 그리고 도로가 없는 중간지점의 순으로 높았다. 아울러 도로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샛길 가에도 귀화율은 비교적 높았다.

남산의 소산 관속식물은 99과 295속 1아종 44변종 2품종으로 총 460종류로 조사되었고, 금번조사에서 13과 52속 104종이 추가되었다. 이 중에는 눈괴불주머니를 비롯한 난쟁이바위솔, 여우주머니, 고욤나무, 하늘타리, 사데풀, 가을강아지풀, 참싸리 등 자생식물은 21종이고, 가시상치, 미국가막사리, 미국자리공, 비짜루국화, 콩다닥냉이, 미국나팔꽃 등은 신 귀화식물이며 히어리, 노각나무, 벌개미취 등은 재배식물이다. 선행 연구기록에는 있으나 금번에 확인 못한 식물은 검은재나무, 섬댕강나무, 솟잔대, 삿갓채, 시호 등이며 이들은 그간의 환경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.

천이경향 분석은 남산의 변화부분을 현재 분포하고 있는 식생을 바탕으로 하기 위하여 방형구(20m×20m)를 설정하여 이 지역내 교목층의 주요 우점종인 신갈나무, 팔배나무, 소나무, 벚나무, 아까시나무, 가중나무 등에 대한 흉고직경(DBH)과 수령을 측정하였으며 개체군 발달과정의 분석을 위해 치수(Sapling)의 개체수를 조사하였다.